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나... 그때
그시절 다시 살게하고 다시 희망을 쓰게 했던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
혼을 위하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김기영)

신경림 시인의 "파장"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모두들 한결같
이 친구 같은 얼굴들...] 사는 게 팍팍하지만 서로 부대끼며 얼굴만 봐
도 흥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이 느껴집니다. 노트에 써놓고 외
우며 음미했던 기억이 나네요.(권보희)

천상병의 귀천 시를 좋아합니다. 저에게 시가 이처럼 아름다울수 있다
는 느낌을 처음으로 보여준 시예요.(김세주)



박노해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다
시 힘을 얻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면 좋은 말이자 좋은 책, <사람만
이 희망이다>를 추천합니다!!(김원진)

100인에게 묻다

- '내가 사랑한 시, 책, 노래'

박노해, 노동의 새벽,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숫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혁명을 꿈꾸었던 어린
혁명가의 가슴을 울렸던 시(홍계신)

2002년 9월 첫 발을 댔던 <희망세상>이
2011년 1월 100호를 맞았습니다.
<희망세상> 100호의 시작은 그동안 <희망세상>
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과 사업회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박노해 너의 하늘을 보아/ 교직 2년차 다소 거칠었던 공고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마음이 힘들어져 있을 때, 자괴감으로 눈물 흘리던 때 이
시를 읽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요.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보내주었던 시입니다.(박미옥)

詩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한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
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반성시키고 또 반성시키는 시입니다.(김태욱)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에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節度)는 열렬하다는 김수영 시인의 사랑의 변주곡은 제게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준 멋진 시입니다.(박중대)

시집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 송경동은 거리의 시인이다. 책상머리
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의 시는 싹튼다. 그는 현실의 구체성에 뿌
리를 내린 생생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비범한 시적 인식을 건져올린
다.(박해영)

김수영의 시, 기도, 자는 아기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이번
에는 우리가 배암이 되고, 이번에는 우리가 썩기 되고, 이번에는 우
리가 그 사나운 놈이 되고 말더라도... 우리들의 혁명을...(이종률)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는 내 마음의 우물입니다. 한밤 휘영청 밝은 달빛아래 그 우물물
속에 비친 한 사나이가 되어 나의 자화상을 비춰봅니다. '별을 헤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
랑해야지' 라고 되뇌이던 별과 우리말을 사랑한 시인. 연회전문 시절 방학이면 내려와 명동촌 제방에서
소를 먹이며 시집을 읽던, 미소가 아름다웠던 청년으로 그의 어린 동생은 후일 기억합니다. 식민지 조
국의 아픔을 눈돌리지 못하여 만세운동을 기획하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투옥되어 이름 모를 괴질로 요
절한 그 시인이 남긴 순수의 결정체. 세월이 가고 훌쩍 그보다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그의 이름은 순
수와 정의의 이름으로, 한사람에게 영원히 푸르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권진옥)

[달 같이 - 윤동주] 연류이 지나가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람이 가슴 하나 빠근히 연류처럼 피어나간다 ...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가는 시간이 원망스러울 때 ... 읽은 시입니다. 보면 왠지 마음이 괜찮아 지더라고요 ^^ (소상현)



함민복 님의 시 / 나를 위로하며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팠던 어느날 만난 이 짧은 시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떠올리며 한숨 돌리곤 합니다. (양선화)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어쩌면 일제의 마루타였을 **윤동주**님의 시를 잘 아해요. 학창시절 잠이 안올때면 되보였던 시가 있어요. **별헤는 밤**이라는 시죠. 올바르게 원했고 깨끗하기를 부끄럼없기를 갈망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되뇌어보곤 합니다. (이윤주)

김남주, 사상의 거처 시인으로 기억되기 보다 전사로 기억되는 시인 김남주, 전사 김남주의 시는 그 자체로 빛이었고 좌표였고 성찰의 기둥이었습니다 사상의 거처는 먹물로 그리는 현학의 미로가 아니라는 것을... (윤용훈)

내가 사랑한 ‘시’

〈희망세상〉 100호 특집 이벤트 ‘내가 사랑한 시, 책, 노래’을 통해 모인 추천 글들과 사업회 임직원들의 추천 글을 모았습니다.



한용운-상자 속에 숨기고 싶었던 그리움... 항상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결코 내색 못하는 저의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심정 넘 슬프네요. (정보근)

내가 사랑한 시 ^^ **김남주** ‘전사’ 일상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지금도 제 수첩 제일 첫장에는 늘 이 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살기위하여 (이수진)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란 시가 생각나네요. 소외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따뜻하고 정겨운 시선이 느껴지는 한국의 명시중에 명시라고 생각해요. (전영식)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평생을 울퉁은 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그리고 어떠한 삶이 참다운 삶인가를 깨닫게해주는 참 좋은 시입니다. (조종철)

[꽃집] 보잘 것 없는 풀꽃 한 송이에서,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이해인** 수녀님은 행복을 찾아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일에 바쁜 당신이 여유를 갖고 짙막한 편지를 써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색)

학교를 졸업하고 청춘의 반항기에 부마사태가 일어나고 그즈음에 읽었던 **푸쉬킨의 삶**이란 시가 생각나네요. 어딜가든 복제된 유희 그림엽에 섞여진 푸시킨의 삶 - 그 당시에는 저와 우리 또래가 처한 현실과 좀 어울린듯하여 자주 읊조리곤 했습니다. (서미자)

정호승 님의 시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를 소개합니다.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불러서 더 잘 알려진 시인데 인생의 좌절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이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홍이경)

내가 사랑한 시이며 나를 눈뜨게 한 시는 -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알맹이를 무시한 채 껍데기가 판치는 작금의 현실에 또 한 번 떠올라 아로새기는...(김남이)

유치환 바위 - 그의 시비가 부산지역 근처 사고 지점 가까이에 세워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주 보게 됩니다 -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사상과 시는 지금도 우리들의 곁에 남아 지친 영혼을 달래줍니다. (박주영)

세계.. 늘 입속을 맴돌며 마음을 지켜주던 시가 있습니다.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되었을 때 슬픔을 겨누기가 힘들어 혼자있는 외로움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힘들어 할 때쯤 세계 위안을 주고 다시 평화를 준 고마운 시입니다. **이대훈**의 **‘작침’** (김선미)

“우리가 어머니인 자연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만 자연도 우리를 바꾸려 할 것이다”라는 컬럼비아대 게일린 교수의 경고는 마치 인간 오만의 극치인 4대강 사업을 두고 한 말 같다. 이런 성서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하느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느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서 7장 13절).(어수갑)



[시] **나희덕**, **흔들리는 것들 / 박노해**, **아직과 이미 사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 희망을 갖게 해 준 시들... ‘저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삶의 무게는 있어...’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달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전서영)

이성복, 1959년, 군인대 전 골방에 처박혀서 책만 읽고 담배만 피우던 시절에 나를 나라에 떨군 이성복의 시가 운데 제일 절망스러웠던 시,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시, 그래서 전화번호 뒷자리도 1959.(원종관)

내가 사랑한 ‘시’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은 단지 옳지 않은 일을 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만히 있으면 지푸 옳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쓸려가기 때문이다. 옳은 길에 서있는 것 만도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늘 흔들리는 존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조철민)

한하은, **전라도 가는 길(김소룡도 가는길)**, 한센병 환자들의 아픔과 애환이 절절히 베어 있어 마음이 아립니다.(박종호)



꿈을 비는 마음, 고 성내운 교수님의 낭만한 낭송 목소리가 그림습니다. 저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는데 저희에게 2편의 시를 암송해주시는 것으로 주례사를 같음하셨습니다. 그 중 한 편이 시가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입니다. 교수님 그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가 주례한 부부 중 헤어진 부부가 있다면 다시는 주례를 서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귀에 아른거립니다.(이난현)

파블로 네루다, **詩, ‘내가 그 나이였을때 시가 내게로 왔다, 나는 모른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인생의 영감과 발견에 대해 조용하지만 뜨겁게 가르쳐주는 시입니다.(이현윤)

김지하 시, **타는 목마름으로**故 성래운 교수님의 청아한 목소리로 낭독을 들었을 때, 그 젊은 날의 전율을 잊을 수 있을까.(송동현)

고은, **《순간의 꽃》**,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고은 시인의 전시회에 가서 이 시 앞에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죽비가 되어 나를 내려줬던 시!(김성일)

김준태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1982년 1월 경 읽게 된 이 시집은 그야말로 내 뒤통수를 세차게 갈겨버렸다. 아직 80년 광주의 핏자욱이, 피비린내가 선명한 ‘1980년 7월 31일 오후 5시’에 술도 먹을 수 없어 콜라로나 목을 축이던 시인이 광주 한복판에서 ‘하느님을 보았다’며, ‘숨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데 받은 충격이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양경희)

전태일평전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출간 당시 제목은,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김건국)

전태일평전, 새내기 때 처음 읽었던 책입니다. 잊을 수가 없네요. 이 책을 건네 준 선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문화주)



한비아 바람의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중요한 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큼 왔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알맞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시기에 내 자신을 바로잡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큰 힘을 준 책입니다! ~(김미정)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구절구절 서민의 삶과 서민 민주 운동을 대변하는 소설이죠. 지금 읽어도 구절구절 절절하네요.(김민영)



조정래의 태백산맥 / 장편소설 읽는 재미를 알게 해 준 작품이죠. 민족 분단의 아픔과 서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있는 작품이라 밤에 잠도 안자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교에 가서 꼭 한번 고평 요리 먹고 싶단 생각도 했었죠.(박미숙)

기억속에서 나를 문물하게 해주는 책은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던 저에게 10권의 책을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눈을 땔 수 없게 만들었던 태백산맥은 남도 의 진한 사투리와 형제간의 대립, 갈등으로 저를 한껏 흥분시켰습니다. 요즘같이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에 민족분단의 원인과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며 지금도 저의 기억속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 단연 "태백산맥"입니다.(차영규)



조정래, 태백산맥, 대학 새내기로 한국현대사를 띄엄띄엄 알고있던 나... 새록새록.(조규연)

저는 가슴을 누르는 울분을 느끼며 **조정래**님의 '아리랑' 12권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한번쯤 꼭 아리랑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걸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우리가 바로잡아가면 되겠지요, 또한 그 동안 무관심과 나태한 삶을 살아온 제가 부끄럽습니다.(이관식)



[행복의 지도]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참 고민하고, 행복하지 못한 나와 나라 가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철 없는 나에게 일침을 가한 그 책. 행복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 책.(손영희)

법정 스님이 쓴 산에는 꽃이 피네 사회에 찌들고 돈에 물들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나를 다시금 돌아 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을 벗삼아 뻑뻑한 일상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책.(신정열)

내가 사랑한 '책'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수능 본 모든 수험생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드높은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십시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윤종욱)

[이기는 습관] 책은 자신의 버릇이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으로써, 정말 자신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책입니다.(이상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한 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홀로 한국을 떠나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림움 그리고 살아야하는 의무감으로 겨우 겨우 버틴다는 말이 어울리던 시절 나무의 뿌리처럼 저를 지탱해주던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이선영)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저작. 어떤 관점의 교육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이창림)



저에게 삶의 활력소처럼 다가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님의 **〈나이는 생각보다 맛있다〉**라는 책인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신선해서 무작정 읽게 되었는데 20대인 저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 책입니다.(김화영)

“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의 인간만이 느끼는 사랑과 향수, 그리고 희망이라는 악을 통해 진정한 휴머니즘의 결정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책을 사랑하는, 책을 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이런 책을 볼 수 있었다니 책을 읽은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정경훈)

“제가 좋아하는 책은 또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덴 퀘일이 쓴 바나나에**요. 바나나? 매일 먹어서 이젠 너무 흔해서 바나나에 숨겨진 뒷 이야기들이 역사가 이렇게 길고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꺼풀 벗기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보이네요. 앞으로는 바나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만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빛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게 만드니까요.”(문혜숙)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리영희**] 15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지배계층의 행동방식, 부당한 권위에 의한 언론 통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지금와서 더욱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정성희)

내 인생을 바꾼 책은 **더불어 숲**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오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 세계를 돌아다니다 쓰신 견문록이자 지성인의 니며 쓰신 견문록이자 지성인의 성찰을 담은 수작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참된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켜켜히 쌓아가야 할지를 절실히 느낄수 있었던 책입니다. 지금도 책꽂이 한켠에 꽂혀 있는데 삶이 괴롭고 심심할때 꾸준히 읽습니다. 한 구절, 한 장이 삶의 그윽한 웅달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 숲**을 강력 추천합니다.(손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여고 졸업식 날 담임쌤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을 읽고 세계에 대해, 사회에 대해 새롭게 보는 눈이 띄었습니다.(김미옥)



헤르만 헷세의 지와 사랑은 지금껏 가슴 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삶이 너무 매마르고 거칠어지지 않도록 촉촉한 감성을 유지시켜 준 책이기 때문이죠.(윤태진)

내가 사랑한

스펜서 존슨의 “선물” - 삶의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책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있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준 제 인생의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전혜연)

문국현,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책.(채현규)

별을 단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접게 만들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오월 光州】**라는 사진집. -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중학생이 될 때까지 1980년 5월의 일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른들의 쉬쉬하는 분위기와 곧바로 진압되는 대학생들의 산발적인 시위엔 접근도 못했었으니 까요. 그러던 차에 보았던 **【오월 光州】**라는 사진집의 그 충격적인 사실과 진실 앞에서 별을 단 군인, 그 다음은 대통령이라는 어린 아이의 꿈은 깨져버렸답니다.(최재영)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얇고 작은 책, 노란 책 표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대학1년 때 본 그 책, 책 어느 쪽에는 **“0000년 00월 00일 처형”**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그 처형이라는 글자에 눈을 박은 채 책장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나찌에 대한 분노에 앞서, 그저 그 불꽃같은 청춘에 대한, 그리고 처형장의 서늘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임채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닥터 노먼 베** 씨입니다. 캐나다 출신 의사가 모택동을 따라 대장정에 오른 것 자체 모두가 똑같이 따르는 닥터 노먼이었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일본군이었다고 해도 똑같이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군인 머니즘 아닙니까? 그 책을 읽고 휴머니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이외수, 아불류 시불류,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헛바퀴 돌 듯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고찰하게 되는 계기를 준 책. (심성민)



사이공의 흰 옷, 고문 받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줬던 책!!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만이 그 혹독한 외중에 나를 붙잡아줬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공감하기 힘들텐데...(황정옥)

목민심서, 다산의 500여 건 저서중 스스로 으뜸이라 한 1표 2서 중 하나인 '목민심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 여기고 관리와 지식인의 역할로서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의 역할을 강조하여 저술한 윤리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무언가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늘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현종철)

붓다, 스타니파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칭찬과 비난에도 걸림이 없고, 제행에 얽매임이 없는 지혜로운 도반과는 함께 가라.(이종률)

박민규,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 무섭도록 빠르고 경쟁적인 삶 속에서, 여유를 찾게 해 주었던 한마디.(박문진)

‘책’

서준식, <옥중서한> (서준식의 생각), 서승 선 생님의 책을 대학 1학년 때 처음 읽고 나서 그의 동생 서준식을 알게 됨. 나중엔 막내동생인 서경식의 글도 사랑하게 되었음. 서준식의 옥중서한은 꾸밈없이 정직하고 강고한 그의 성품과 삶을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함. "예수를 좇아, 삶에 기대어"가 딱 맞는 그와 그의 글. (원종관)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책.(이미영)

노무현, 성공과 좌절, 군부 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한 투사의 이야기에서부터 그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시민이 주가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 아쉬움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와 한계, 필요한 점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책.(탁헌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모리 선생님의 말씀중에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 생애에 마지막에 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이나영)

남웨일즈, 아리랑, 책을 읽는 내내 한 인간의 삶이 가슴에 남아, 그 삶을 배우려 노력했던 기억때문 에...(이영교)

이산하의 한라산, 그 누구도 제주 4·3항쟁을 감히 말할수 없었던 87년 3월, 4·3의 진실을 노래했던 대서사시로서 NL의 원단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일독을 권해드린다.(신형식)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자신의 생각과 위대한 성인들의 말을 모아놓은 책, 가끔씩 들춰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린다.(권형택)



에두아르도 갈레야노 '볼의 기억' 대학 들어간 이후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종류와 모든 장르의 책 '소유' 내지는 '소장' 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지만, 이 책만큼은 눈이 침침해 돋보기로도 더 이상 글을 못 읽게 될 때까지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 어디를 펴서 읽어도 감탄사가 나올 만큼 매혹적인(수식어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다) 책이다.(양경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의 이 말 한 마디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한다."(이호룡)

안치환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호승님의 시가 노래가 된 시, 최근 가
슴아픈 일들이 많아서 슬픔의 힘 속에서 생성되는 사랑의 힘으로, 힘
든 삶 속에서 희망을 갖자는 의미에서 추천합니다.(이찬범)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추천합니다. 민주주의의 열망을 안고 널리 불
리웠던 이 노래가 요즘들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네요. 날씨가 세상들
아가는 것 만큼 출기만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내야겠습
니다.(강상원)

[노동의 새벽]..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거칠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특히 소주
한잔하면 꼭 돌려 앉아서 노동의 새벽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다.(이영주)

노랫사 '사계' 1989년 공단길마다 빼곡히 그녀들의 속삭임이자 흐느
김이었던 미성 소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칠 줄 모릅니다. 언제쯤
우리는 맘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구정모)

달빛요정역전만무홀런의 축배 :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 힘들고 지칠 때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노
래입니다. 나를 위해 축배를 들어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 이 노래를
들으면 볼끈 힘이 납니다!(김민경)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셋바람에 떨지 마라/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살
아서 만나리라.** 지금도 흥얼거리며 그시절을 떠올리게 되네요. 멋도
모르던 어린시절 데모할 때 많이 불렀잖아요. 이제와서 들으니 더 감
동인 것 같아요.(김태준)

내가 사랑한

안치환이 부르는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들
기만 해도 가슴 벅찼던 그 곡.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그 노래..
참.. 아련하네요..(박진호)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광야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
태하고 안일했던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듣기만 하다 어느날 노래방에서 불렀더
니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치욕의 강제병합 100년을 돌아
보면서 앞으로 나갈 희망찬 100년을 상상해봅니다.(박항자)

바위처럼. 바쳐야한다. 20대때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노래의 가사처럼
강인하고 열정적으로 살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가끔씩 흥얼거리면서 그때 가슴속에 가지었던 마음을 다시 다짐하곤
해요.(안준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임을 위
한 행진곡)** 지금 불려도 가슴 울컥해지는 노래 입니다. 이 노래를 평생
시에도 눈치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이정은)

김광석 - 행복의 門 :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문득 나 혼자 남겨져 외롭다고 느껴질
때 저는 이 노래를 듣고는 합니다.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노래는 저에게 새로운 진군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는 하였습니다.(유재범)

안치환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 한 음 한 음마다 새로운 참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슴아픈 현실이 녹아들어있는 양성우 시인의 시구절과
안치환 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오랜 시간 절 사로잡았던 노래입니
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시어가 특히 가
슴을 울렸죠.(전은경)



“조용필님의 [꿈]과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추천합니다. 조용필님의 꿈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때 . 정말 피눈물나고 서러웠던 일이 많았지만 꿈이란 노래를 듣고 큰 위안을 얻곤했지요.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뭔가 집착하고 욕심이 들끓을때 따끔하게 절 경책하던 책입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책이죠.”(pgr44)

초등학교 때 배운 **동요 <작은 연못>**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던 그때.. 아무도 살지않는 죽음의 연못이 되어버린 것을 상상해 보면서 공허한 마음이나 인생무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우주정복자)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일상 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김수연)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을 실어주었던 노래 **양희은의 상록** 수가 생각합니다. 기타를 치며 잔잔히 부르시던 한 분도 더불어 생각 나네요.(김기범)

“정희성 시 **‘너를 부르마’** 89년에 대학에 복학했을 때 후배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유독 마음에 와닿는 노래였다. 대학가에 많이 알려진 노래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그 당시 대학 다녔던 이들을 만나도 ‘너를 부르마’를 부르는 사람은 도통 만나보질 못했다.”(정경자)

“**박종화의 지리산**/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노래. 요즘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잠시 떠나 있습니다.”(홍용학)

‘노래’

김민기의 곡, 공장의 불빛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과 야근에 지친 우리들의 누이와 보태어도 보태어도 모자랄 우리 시퍼런 젊은 날들의 배회를 위하여.(이종률)

김원중의 ‘직녀에게’ 의문사 당한 친구의 사체를 뒤로하고 스물여덟, 늦깎이로 군대를 가면서 피눈물나게 울었는데..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훈련소 생활, 훈련받으며 날마다 수 십번씩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직녀에게.(은영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 g단조 브루흐가 28세에 작곡했다고 알려진 곡.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이나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안정감이 풍부해 달콤한 휴식이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음. 3악장 구성으로 20여 분 짜리라 짧아서 더더욱 좋음.(배선화)

오지은 ‘작은 자유’ 세상의 수 많은 작은 ‘나’의 자유와 꿈과 실천들이 모여 행복한 세상이 되는 달콤한 꿈을 꾸게 만드는 노래.(최지윤)

한영애, 조을 “잠자는 하늘님이며,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 빛처럼 조을 한 번 해 주세요” 산도 무너지고 강도 허물어지는 요즘, 자꾸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네요.(양지연)

